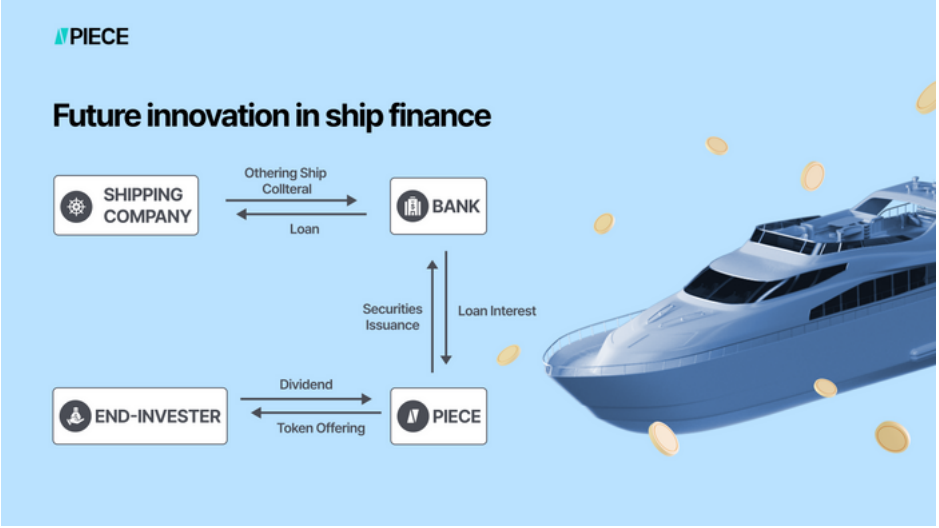
바이셀스탠다드, 정책자금 99% 의존 '선박금융' STO로 대안 마련

입력 2024.02.22 08:19 수정 2024.02.22 08:1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BFC-Z/YEN 공동 연구보고서에 STO 사례 수록
"리먼사태 이후 위축된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나서겠다"



ⓒ바이셀스탠다드

국내 최초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가 공적자금, 기관투자자에 의존해온 선박금융 시장에 새로운 투자 대안을 제시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과 글로벌 컨설팅 기관 지옌(Z/Yen Group)이 공동으로 발표한 '해양금융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연구보고서에 해양산업에서의 핀테크 기술 융합을 사업에 적용한 사례로 수록됐으며, 관련 웨비나에서 토큰증권(STO)를 활용한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노력 사례로 언급됐다고 22일 밝혔다.

S24 4만원 이 가격에 다 드려요
기기반납X 부가X 결합X 고객부담금
당일배송 온라인 특판가 혜택
wearphone.dbcart
자세히 알아

바이셀스탠다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이 철수하면서 선박금융은 투자재원의 약 99%를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중소선사들과, 중소형 선박 등 다양한 선박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중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STO를 활용해 비정형적 증권을 발행하면, 중소형 선박 건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동화가 가능하고, 민간 내행화물선 등 노령화가 가속화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바이셀스탠다드 선임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선박금융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기술 접목을 천명했으며,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도 선박배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STO를 활용한 선박금융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의 사례는 BFC와 Z/Yen이 공동발행하는 '해양금융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보고서에 실릴 예정이다.

특히 바이셀스탠다드는 선박금융의 STO 투자상품화를 위해 복수 증권사와 협력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과 동시에 한국거래소가 상반기 오픈할 예정인 신종증권 거래소에 해당 상품을 상장, 소액투자자 누구나 편하게 제도권 안에서 선박금융 STO를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웨비나에는 윤희성 한국해양대 교수, 마이크 와들 Z/Yen CEO 등이 참여해 △해운사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리스크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탄소중립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등장과 해양금융업무의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 분야에서의 국제합의표준 도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바이셀스탠다드 #선박금융 #조각투자 #피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